

## 일개 대학신입생에서의 신경정신질환 유병률

서명수, 김병성, 최현림, 원장원, 최동우, 이선호

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**연구배경:** 신경정신 건강 문제를 쉽게 선별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학 입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에 처해있는 일개 대학 신입생의 신경정신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하여 청소년기 신경정신질환의 유병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.

**조사방법:** 조사 기간은 2001년 3월 2일부터 6일간이었고, 조사 대상은 2001학년도 경희대학교 신입생 1078명이었다. 조사 도구는 신뢰도가 입증된 PRIME-MD PHQ(Patient Health Questionnaires)를 이용하였다. 조사 내용은 흔한 신경정신질환인 기분장애, 불안장애, 신체화장애, 알코올 사용장애, 섭식장애의 유병률을 조사하고, 관련 변수인 성별, 연령, 캠퍼스, 전공 및 체질량 지수군(BMI)에 따라 유병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. 통계 분석은 T-test,  $\chi^2$ -test 및 ANOVA로 검정하였다.

**결과:** 알코올 사용장애의 유병률이 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신체화장애 2.3%, 폭식장애 2.0%, 주요 우울장애 1.8%, 경우우울장애 1.8%, 신경성 대식증 1.0%, 기타 불안장애 0.6%, 공황장애 0.3%로 나타났다. 관련 변수에 따른 유병률 차이를 보면, 남자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가 11.8%로( $P < 0.05$ ), 여자에서는 신체화장애가 3.4%로 높은 유병율을 보였다. 체육학 전공군에서 알코올 사용장애가 19.0%로 타전공자보다 높았고( $P < 0.01$ ), 수원 캠퍼스군에서 기분장애, 알코올 사용장애, 신체화장애의 유병률이 높았다( $P < 0.05$ ). 그 외 연령 및 BMI군에 따른 유의한 유병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**결론:** 대학 신입생에서 신경정신질환의 한달 유병률은 18.4%였고, 남자 18.8%, 여자 17.7%였다. 성별, 전공 및 캠퍼스 위치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 유병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남자 및 체육 전공자에서 알코올 사용장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**중심단어:** 신경정신질환, 유병률, PRIME-MD, 대학신입생